

# 요즘 대세는 차박... 완성차업계, 캠핑족 겨냥 상품 봇물

코로나 여파 車 숙박 캠핑 증가  
업계, 다양한 프로모션 잇따라

르노삼성, 체어·담요 등 심플 제품  
쌍용차 티볼리 에어 캠핑패키지  
현대차 캠핑카 '포레스트' 선보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시대에 차에서 숙박을 즐기는 '차박'의 인기가 뜨겁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히며 전국의 캠핑장은 주말마다 캠핑족으로 가득찬다. 최근에는 차박을 즐기는 캠핑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캠핑 관련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차박하기 좋은 차'에 대한 검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3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구매시 다양한 차박 용품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QM6와 XM3 전용 차박 액세서리를 추가 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작년과 비교해 차박에 필요한 액세서리 매출이 30%가량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차박 열풍 전부터 판매해오던 QM6 전



쌍용차 티볼리 에어.

용 에어매트와 카텐트는 작년 대비 각각 4.4배, 33배 증가했다.

지난 6월 출시한 XM3 전용 에어매트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XM3 전용 에어매트는 6월 출시 이후 매달 평균 10% 이상씩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8월에 추가로 선보인 XM3 전용 카텐트 또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은 기존 에어매트와 카텐트에 이어 차박 캠핑을 보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심플 체어, 심플 테이블, 와이드 담요, 캠핑 행어, 우드 프린팅 텀블러 등 5개 차박 제품을 이달 추가로 출시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 중 코로나19 사

태 이전부터 캠핑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쌍용차는 '캠핑=쌍용차'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쌍용차가 지난 2018년 10월 고객 전용 오토캠핑빌리지가 대표적이다. 쌍용 어드벤처 오토캠핑빌리지는 아웃도어 마케팅을 선도해 온 쌍용차가 지난 2018년 10월 국내 최초로 오픈한 '고객 전용 프라이빗 캠핑공간'으로 1년 만에 누적 방문객이 2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1년여 만에 새롭게 출시한 티볼리 에어 구매고객(선착순 1000명)을 위해 캠핑 패키지도 제공하고 있다. 캠



르노삼성 '르노 카 텐트'

핑 패키지에는 ▲다이아몬드 먼타프 ▲커플캠핑체어세트 ▲테이블 겸용 폴딩박스 ▲인디언 담요형 러그 ▲인디언 가랜드 ▲인디언 행어 ▲어드벤처스티커 ▲LED 멀티 랜턴 ▲앵두 전구 등 캠핑에 필요한 장비로 구성됐다.

지난해 단종된 이후 1년여 만에 부활하는 티볼리 에어는 티볼리의 차체를 키운 모델이며 1.5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디자인과 상품성을 개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대차는 차박 트렌드에 맞춰 캠핑카 '포레스트'를 선보였다. 소형 트럭 포터 II를 기반으로 한 캠핑카 '포레스트'는 편안하고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최대 4인 가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포레스트는 2열 승객석에 주행·캠핑·취침 상황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변 캠핑 시트를 탑재해 내부 공간 활용도를 끌어올렸다. 가변 시트는 주행 중에는 시트, 캠핑 시에는 소파, 잘 때는 침대 용도로 쓸 수 있다.

포레스트에는 캠핑지에서 샤워실, 화장실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을 고려해 ▲독립형 샤워부스 ▲실내 좌변기를 선택 사양으로 적용할 수 있다. 차량 내 각 창문에 커튼이 설치됐다. 포레스트 가격은 4899만원부터 7706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엔트리 SUV '베뉴'

## 현대차 '2021년 베뉴', 인기사양 기본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선에  
인조가죽시트 등 상품성 강화

밀레니얼 세대의 혼라이프(혼자 사는 삶)를 겨냥한 현대자동차의 대표 엔트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베뉴'가 상품성과 편의성을 더한 새로운 모델로 출시됐다. 현대차는 22일 상품성을 강화한 '2021베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21 베뉴는 고객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인기 사양을 기본화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상품성을 강화했다. 스마트 트림(기본 트림)에 고객 선호 사양인 ▲인조가죽시트 ▲앞좌석 열선시트 ▲전동접이, LED 방향지시등이 포함된 아웃사이드 미러를 기본 적용했으며, 스마트스트림 IVT(무단변속기) 역시 기본화했다.

주력 트림인 모던 트림은 ▲순전석 통풍시트 ▲LED 헤드램프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으며, 최상위 트림인 플렉스 트림도 동승석 통풍시트를 기본화하는 등 고객의 선호도를 충실히 반영했다.

또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



2021 베뉴 스마트 트림에 기본 적용된 앞좌석 열선시트

(OTA)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무선 커넥티비티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했다.

여기에 반려동물용 커스터마이징 패키지도 추가했다. 이번 2021베뉴에는 야외 활동에 필요한 ▲컵홀더 토이(1/2열 공용) ▲목줄과 리드줄 ▲포터블 포켓과 멀티파우치 ▲일상 생활용 하네스로 이루어진 '햇 패키지'를 신규 추가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둔 혼족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2021 베뉴 판매가격은 ▲스마트 1662만원(IVT, 무단변속기) ▲모던 1861만원 ▲플렉스(FLUX) 2148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 '친환경 특허·인증 1000건' 모비스, 장관상

국제환경규제 대응 우수기업 선정

현대모비스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전사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친환경 경영 관련 회사 측이 보유한 특허와 국제 인증 건수도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자동차부품을 글로벌 시장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0 국제 환경규제 대응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상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0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행사'에서 이뤄졌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000여건에 이르는 친환경 경영 관련 특허와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O14001(환경경영), IHSAS18001(안전보건경영), IATF16949(자동차산업 품질경영) 등 총 150건의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한 디자인, 실용신안, 특허 등도 778건 보유하고 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해화학물질 성분 분석을 통해 적합성이 확인된 원재료만을 적용하고 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요인을 차단한다. 최종 제품에 대

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성분 검사를 통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

최근 현대모비스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고도화했다. 화학물질정보를 표준화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화학물질이 어느 제품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환경규제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위험부품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와함께 2018년부터 안전환경품질팀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사 유해화학물질관리 프로세스 구축 TFT를 구성하고, 전사 유해화학물질 관리 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차그룹 '커넥티드 카' 가입자 200만명 돌파

현대자동차그룹 커넥티드 카 서비스 국내 누적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2019년 6월 100만명, 올해 4월 150만명 달성에 이어 6개월만에 200만 명까지 넘어섰다.

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차량 제어, 차량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현대차 블루링크, 기아차 유보,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가 운영

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3년 현대·기아차가 국내 최초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모젠'을 출시하며 커넥티드 카 서비스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2012년 현대차가 블루링크, 기아차가 유보를 출시하며 분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선보였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원격 제어 ▲안전 보안 ▲차량 관리 ▲길 안내 ▲카페이 등의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CES 2019'에서 2022년 글로벌 커넥티드 카 서비스 가입 고객 1000만명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차종에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탑재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내를 비롯해 미국, 중국, 캐나다, 인도, 유럽, 러시아 등에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전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